

화학산업, SARS 타격 점차 해소!

중국, 경제성장률 8%로 상향조정 ... 5월에는 가격하락·물류 타격

중국이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우려에서 벗어남에 따라 투자전문 기관들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을 사스 위험지역에서 해제한 지 하루만인 6월25일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는 중국의 200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를 7.3%에서 8.0%로 올려 잡았다고 발표했다.

리먼 브러더스는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이 당초 예상보다 1개월이나 빨리 사스에서 벗어남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스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지난 5월 노동절 휴가가 단축됐으며 오락시설들이 문을 닫는 등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중국인들의 소비에서 생필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급격한 소비감소 충격을 완화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엄청난 인구도 사스 충격을 흡수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은 사스 피해가 매우 심각했으나 중국 전체로는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보다 피해가 적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SDRC)도 사스로 인해 중국의 2003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1% 낮아질 것이지만 성장률이 7.0%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활동은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SARS 확산에 따라 5월 아시아의 에틸렌 가격은 2월 이후 톤당 약 360달러로 50% 폭락했고 PE 가격은 3월 말 이후 톤당 550달러로 약 150달러 하락했었다.

특히, SARS로 큰 타격을 입은 베이징에서는 화학기업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해 Sinopec의 자회사인 Beijing Yanhua Petrochemical은 의료장비의 베이징 이전으로 도로 및 철로 교통이 혼잡해져 베이징 인근 Yanshan 단지의 화학제품 적재 및 수송이 늦어져 영향을 받았다.

이에 Beijing Yanhua는 에틸렌 71만톤 크래커의 한달간에 걸친 정기보수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했다. 플랜트 폐쇄기간 동안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있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SARS를 두려워한 노동자들이 베이징 여행을 꺼려함에 따라 충분한 보수인력을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타이완의 CPC(Chinese Petroleum)는 중국수요 감소로 에틸렌 생산능력의 25%를 차지하는 Lin Yuan의 에틸렌 23만톤 크래커 가동을 중단했다. 또 5월20일에는 타이완 Kaohsiung의 45만톤 크래커를 약 2주간 중단했다.

타이 방콕의 NPC(National Petrochemical)는 SARS로 화학제품 가격이 더 떨어지면 2003년 매출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NPC는 연초 2003년 매출을 약 130억Baht(3억400만달러)로 전망했다.

<Chemical Journal 2003/06/30>